

양산 신기리산성에 대한 소고

이 일 잡*

〈목 차〉

- I. 머리말
- II. 문헌기록상의 양산
- III. 신기리산성의 구조와 축조수법
- IV. 신기리산성과 삼량성에 대한 검토
- V. 맺음말

국문요약

신기리산성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읍 신기리 산 20, 북정동 산 20, 호계리 산 112,260번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면적은 157,074㎡로 성황산 정상과 그 인접한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97호로 지정되었다. 신기리산성 동벽 체성부에서 통일신라시대를 전후한 초축성벽이 확인되었다. 이 성벽에는 외벽기단보축이 설치되어 있고品茶형의 바른층쌓기를 실시하고 기단부에서부터 내벽쪽으로 약 5cm 간격으로 들여쌓기를 실시한 높이 1.7m(전체 3.2m) 가량이 확인되었다. 잔존 성벽의 현황에 따르면 초축 이후 수개축이 구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적어도 총 3차례 내외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초축 시기가 빠르면 5세기 중후반에서 7세기로 추정할 수 있겠다. 또한 성내에서 신라 토기편과 통일신라시대까지 소급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편, 고려시대의 기와편과 분청사기편, 다량의 백자편 등의 유물이 수습되는 것으로 볼 때 조선시대까지 성곽의 기능이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초축 이후 최소 3차례 이상의 수개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양산 신기리산성은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를 비롯하여 조선 전기를 거쳐 금정산성이 축조 사용되는 기간까지 양산을

이 논문은 2012년도 동양문화연구원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재)국보학술문화연구원 원장

비롯하여 기장, 울산, 언양 군민의 입보용산성(入堡用山城)으로 계속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신라, 가야, 백제의 낙동강유역을 사이에 둔 투쟁과정과 당시 사회상을 파악하는데 신기리산성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유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양산 신기리산성은 신라의 남쪽 방어와 가야 공격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던 삼량주의 치소성으로 비정된다고 할 수 있겠다.

주제어 : 신기리산성, 통일신라시대, 삼량주성, 입보용산성, 신라, 가야

I. 머리말

양산시에서는 최근 사적 제97호로 지정되어 있는 양산 신기리산성의 정비 사업에 앞서 신기리산성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사를 위하여 기 측량된 자료를 토대로 변위부분의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보존·정비계획의 방향을 검토하여 향후 이루어지는 보수·정비·복원사업 및 활용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였다. 이 현황조사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신기리산성의 초축으로 추정되는 체성부의 일부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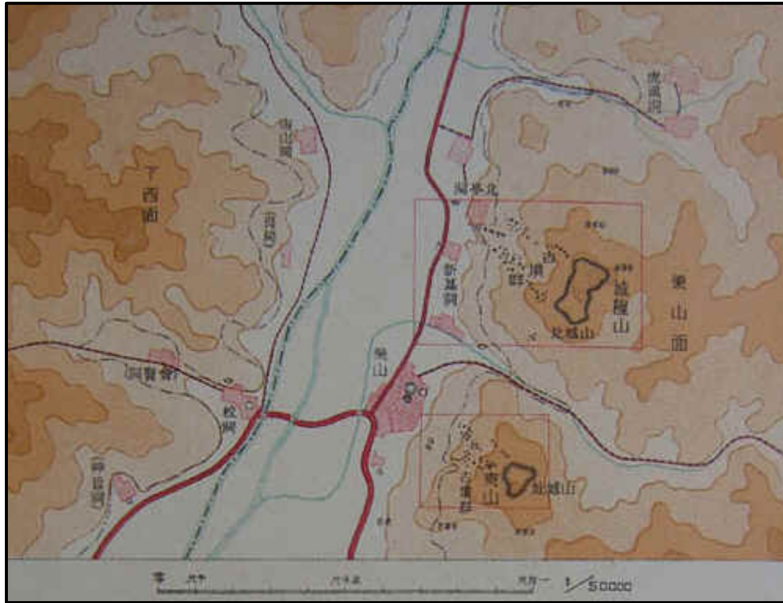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신기리산성의 현황조사에서 확인된 양상을 중심으로 신기리산성의 구조와 축조수법을 검토하고 아울러 양산지역 성곽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삼량성에 대한 위치비정을 실시하고자 한다. 선학동배들의 아낌없는 질정을 부탁드린다.

II. 문헌기록상의 양산

양산시는 지리적인 특성상 고대부터 현대까지 수로와 육로를 통한 군사적 요충지의 역할과 경제적 문물을 담당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三國志』, 『魏志東夷傳』에 의하면 변진한 24국 가운데 한 곳에 해당된다고 보이지만 양산지역으로 명확하게 비정되는 지역을 찾아 볼 수는 없다. 일부 변진 24국 가운데 불사국과 호로국에 속하였다고 보기도 하고, 거칠산국으로 비정하기도 한다.

삼한시대 진한의 12국 중 경주에 위치하였던 사로국이 세력을 팽창하면서 낙동강, 남해안과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연결하는 통로에 위치했던 양산은 일찍이 신라의 세력권에 편입되었다.



도 1. 일제강점기 당시 신기리산성 및 북부동산성과 고분 조사지도¹⁾

초기에는 “馬頭”라는 지명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三國史記』에 삼양(敵良), 삼라(敵羅), 『日本書紀』에 초라(草羅), 잡라(匠羅), 상원(桑原)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문헌기록상 삼국사기 탈해왕 21년(78), 지마왕 4년(115)에 각각 오늘의 물금지역인 황산진에서 가야병과의 전쟁기사가 보이고 있으며 미추왕 3년에는 왕이 직접 황산을 방문한 기사가 있다. 또 자비왕 6년에는 왜군의 삼랑성 침입기사가 있고, 문무왕 13년에는 삼랑주 골쟁현성을 쌓은 기사도 있다. 그리고 눌지왕 1년(417) 박제상이 삼랑주간을 맡고 있었다는 기록과 자비왕 6년(643)에 왜가 삼랑성을 침략하였다가 대패를 당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무열왕 때 삼랑주 총관을 지낸 김서현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신라 초기에부터 양산의 옛 이름이 삼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문무왕 5년(665)에 그 영역을 확대하여 9주 가운데 하나인 삼랑주의 처소로 발전하였으며 신문왕 7년(687)에 성을 쌓았으니 둘레는 1천 2백 60보이다. 그 뒤 경덕왕 16년(757)에 전국적인 군, 현 명칭의 개편이 단행될 때 삼랑주를 양주로 개칭하고 1소경 12군 34현 4정으로 개편하였다. 현양현(獻陽縣)은 본래 거지화현(居知火縣)인데 지금도 그대로 부른다고 하였다.

『삼국사기』권34, 잡지3, 지리1, 양주조에 따르면 “양주는 문무왕 5년, 인덕

1) 朝鮮總督府, 『梁山夫婦塚と其遺物』, 소화 2년.

(麟德) 2년(665)에 상주(上州)·하주(下州)의 땅을 분할하여 삼량주(叡良州)를 설치하였다. 신문왕 7년(687)에 성을 쌓았는데 둘레가 1,260보였다. 경덕왕이 이름을 양주(良州)로 고쳤다. 지금의 양주(梁州)이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경덕왕 16년(757) 당시 양주(良州)는 12개 군(郡), 34개 현(縣)을 관장했으며, 주(州)에 직속하는 현은 하나였다. 주치(州治)는 현재의 양산(梁山)이다. 지금의 경주를 제외한 경상남북도 대부분의 지역을 양주에서 관할케 하였다. 군부대로서 삼량화정(參良火停)과 만보당(萬步幢)을 두었으며, 장관으로 도독(都督), 차관으로 주조(州助), 그 밑에 장사(長史)를 각각 1명씩 두었다.

또한 『三國史記』권45, 열전5, 박제상 및 『三國遺事』기이2, 나물왕·김제상조에 의거해 볼 때, 5세기 초에는 “삼량촌(叡良村)” 또는 “삼라군(叡羅郡)”으로 신라에 이미 복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초인 940년(태조 23)에 양주로 개칭했으며, 성종 대에 방어사를 두었다. 현종 9년(1018)에 군으로 고치고, 동평현과 기장현을 영현으로 두었다. 성종 2년(983)에 지방행정구역 개편으로 영동도에 속하게 되었다. 현종 9년(1018)에 경주목 관하의 방어군으로 방어사를 두고 동평, 기장현을 속현으로 하였다. 충렬왕 27년(1301)에 밀성군(지금의 밀양시)에 병합되었다가 충렬왕 30년(1304)에 양주군으로 복구되었다. 군명의 별호로 의춘(宜春), 순정(順正)이라고도 칭했다.

『高麗史』에서는 “양주(梁州) 신라 문무왕 5년에 상주(上州)와 하주(下州)의 땅을 베어서 삼량주(叡良州)를 두었는데 경덕왕이 고쳐 양주(良州)라 하여 9주(九州)의 하나에 대비하였다. 태조 23년(940)에 다시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 현종 9년(1018) 방어사를 두었다가 뒤에 원의 중서성이 본국의 官이 번잡하여 민폐가 됨을 말하기 때문에 밀성에 병합하였다. 그러나 주현(州縣)이 수재(守宰)에게 품명(稟命)하고자 왕래에 구노(劬勞)하니 그 폐단이 심한지라 충렬왕 30년(1304)에 이르러서 다시 복구하였다. 별호를 의춘(宜春)이라 하고 또 호(號)를 순정(順正)이라 한다. 두 현이 속현으로 동평현과 기장현이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 군현제 개편에 의해 1413년(태종 13)에 양산군이 되어 조선시대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별호는 의춘(宜春), 순정(順正)이었다. 지방제도 개정에 의하여 1895년에 동래부 양산군, 1896년에 경상남도 양산군이 되었다. 1906년 대산면, 김해, 좌면이 동래로 이관되고 울산의 외남면, 웅상면을 편입했다.

태종 13년(1413)에 양산군으로 개칭되었다. 선종 25년(1592)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군수가 전사하고 백수회가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으며 곳곳에서 의병들

이 일어났다. 임진왜란 이후에 동래부에 편입되었다. 선종 36년에 복구되었다. 이때 병사는 경주진으로 이관되어 행정과 병사가 분리되었다. 그 뒤 인조 21년(1643)에 동래 금정산성을 축조한 후에 병사는 다시 동래부로 이관되었다. 광무 원년(1897) 전국 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여 읍내, 동면, 상서, 하서, 상북, 하북, 구포, 대저의 8개면으로 관할해오다가 광무 10년(1906)에 구포와 대저면을 동래군과 김해군에 넘겨주는 동시에 울산군의 외남면과 웅상면을 편입하였으며, 1910년 외남면을 울산군에 환부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읍내, 동면, 상서, 하서, 상북, 하북, 웅상의 7개면 58개 마을로 개편 관할하였다. 1918년 읍내면이 양산면으로 개칭되고 1919년 신평과 양산에서 장날을 기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1930년 양산농민조합사건이 발생하여, 양산경찰서를 습격하였다. 1936년 상서면이 물금면으로, 하서면이 원동면으로 개칭되었다. 양산과 삼량성에 관련한 문헌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국사기』권1, 『신라본기』, 탈해니사금 21년

가을 8월, 아찬(阿飡) 길문(吉門)이 가야(加耶) 군사와 황산진(黃山津) 어귀에서 싸워 1천여 명을 목 베었으므로, 길문(吉門)을 波珍飡(파진찬)으로 삼아 공로를 포상하였다.²⁾

『삼국사기』권9, 『신라본기』9, 경덕왕 16년

…경덕왕 16년 삼량주를 양주로 고치고 1주, 1소경, 12군, 34현을 소속시켰다…³⁾

『고려사』권57, <지>제11, 지리2

양주는 신라 문무왕 5년(665)에 상주, 하주로 땅을 나누어 삼량주(插良州)를 두었는데, 경덕왕이 양주로 고쳐서 9주의 하나로 만들었다. 고려(高麗) 태조 23년(940)에 지금의 명칭으로 고쳤고, 현종 9년(1018)에 방어사를 두었다가 후에 원나라 중서성에서 우리나라의 고을(관)이 번잡하여 백성들의 폐단으로 된다고 하여 밀성에 합쳤다…(중략)…그러므로 충렬왕 30년(1304)에 다시 와서 원래

2) 『三國史記』卷1, 『新羅本紀』, 脫脫解尼師今 二十一年 秋八月

阿飡 吉門與加耶兵 戰於黃山津口 獲一千餘級 以吉門爲波珍飡 賞功也

3)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9, 景德王 16年

景德王 16年 …(상략)…畝良州爲良州 領州一小京一郡十二縣三十四…(하략)…

대로 고쳤다. 별호는 의춘(宜春)이며, 또는 순정(順正)으로 부르기도 한다. 가야진(伽倻津)과 황산강(黃山江, 무안(務安)의 용진(龍津), 광양(光陽)의 섬진(瞻津)과 함께 거슬러 흐르는 세 개의 큰 강물이라고 일컬음.)이 있다. 또한 가야진연소(伽倻津衍所)가 있다. 속현이 2개이다.⁴⁾

『세종실록』권150, 「지리지」, 경상도, 경주부, 양산군

신라 문무왕(文武王) 5년에 【당나라 고종(高宗) 인덕(麟德) 5년.】 상주(上州) · 하주(下州)를 베어서 처음으로 삼량주(叡良州)를 설치하였는데, 경덕왕이 양주(良州)로 고쳐서 구주(九州)의 하나로 갖추었다. 고려 태조 23년 경자에 양주(梁州)로 고치고, 현종(顯宗) 무오에 방어사(防禦使)를 두었는데, 본조 태종 13년 계사에 예(例)에 의하여 양산군(梁山郡)으로 고쳤다. 【이 해에 유수부(留守府)·대도호부(大都護府)·목관(牧官)을 제외한 ‘주(州)’ 자를 가진 단부(單府) 및 군현(郡縣)은 모두 ‘산(山)’과 ‘천(川)’으로 고쳤다. 뒤에도 이와 같다.】 별호(別號)는 의춘(宜春)이며, 【순화(淳化) 때에 정한 것이다.】 또 순정(順正)이라고도 한다. 진산(鎭山)은 원적산(圓寂山)이다. 【천성산(千聖山)이라고도 한다. 소금강(小金剛)이라고도 한다. 양산과 울산 두 고을 사이에 있다.】 취서산(鷲棲山) 【군(郡) 북쪽에 있다.】 대천(大川)은 가야진(伽倻津)과 【군(郡) 서쪽 33리에 있다. 속칭은 옥지연(玉池淵)인데, 신룡(神龍)이 있다는 곳으로서, 매년 춘추로 향축을 내려 제사를 행한다. 중사(中祀)이다. 성황산 석성(城隍山石城)은 군(郡) 동쪽 5리에 있다. 【둘레가 5백 69보인데, 그 안에 작은 시내가 둘, 작은 못이 넷, 샘과 우물이 넷이 있고, 또 군창(軍倉)이 있다.】⁵⁾

4) 『高麗史』卷57, <志>第11, 地理2

梁州 新羅文武王午年 割上州下州置叡良州 景德王改爲良州 備九州之一 太祖二十三年 更今名 顯宗 九年置防禦使 後元中書 以本國官繁民弊爲言 故併密城·(중략)·至忠烈王三十年 復舊 別號宜春, 又號順正. 有伽倻津, 黃山江(務安之龍津, 光陽之蟾津, 稱爲背流三大江水). 又伽倻津衍所. 屬縣二.

5) 『世宗實錄』卷150, 「地理志」, 慶尙道, 慶州府, 梁山郡

梁山郡: 知郡事一人. 新羅文武王五年, 【唐高宗麟德五年】 割上州下州, 初置叡良州. 景德王改爲良州, 備九州之一. 高麗太祖二十三年庚子, 改爲梁州, 顯宗戊午, 置防禦使. 本朝太宗十三年癸巳, 例改爲梁山郡, 【是年, 除留守府大都護府牧官外, 帶州字單府及郡縣, 悉改以山川字, 後放此】 別號宜春, 【淳化所定】 又號順正. 鎭山, 圓寂 【一云千聖山, 一云小金剛山, 在梁山、蔚山兩郡之間】 鷲棲山 【在郡北】 大川, 伽倻津. 【在郡西三十三里, 俗稱玉池淵, 神龍所在, 每歲春秋降香祀行祭, 中祀·중략· 【中品】 城隍山石城, 在郡東五里. 【周回五百六十九步, 內有小溪二, 小池四, 井泉四, 又有軍倉.】 …하략…

『신증동국여지승람』권22, 경상도, 양산군

동쪽으로 기장현 경계까지 23리이고, 동래현 경계까지 17리이다. 남쪽으로 같은 현 경계까지 46리요, 서쪽으로 밀양부 경계까지 50리요, 금해부 경계까지 18리요, 북쪽으로 언양현 경계까지 41리이며 서울과의 거리는 9백 6리이다.

(건치연혁) 신라 문무왕이 상주와 하주 땅을 베어서 삼량주를 두었는데, 경덕왕이 양주로 고쳤고, 고려 태조가 양주로 고쳤으며, 현종이 방어사를 두었다. 뒤에 원 나라 중서성에서 본국의 관청은 번거롭고 백성에게는 폐가 된다고 하므로 밀성에 합쳤다가 충렬왕이 전대로 회복했고, 본조 태종조에서 지금 이름으로 고쳐서 군으로 삼았다.

(군명) 삼량주 · 양주 · 양주 · 의춘 · 순정.⁶⁾

『경상도읍지』, 산군

(건치연혁) 신라 문무왕이 상주와 하주 땅을 베어서 삼량주를 두었는데, 상주는 곧 지금의 상주이며, 하주는 곧 지금의 창녕이다. 삼한 모든 지역을 나누어 구주를 두니 삼량주는 그 중의 하나이다. 경덕왕이 양주로 고쳤고, 고려 태조가 다시 양주로 고쳤으며, 현종이 방어사를 두었다. 원나라 중서성에서 본국의 관청은 번거롭고 백성에게는 폐가 된다고 하므로 밀성에 합쳤다가 충렬왕이 전대로 회복하였다. 본조 태종 조에서 지금 이름으로 고쳐서 군으로 삼았다…(하략)…⁷⁾

『여지도서』, 상도, 양산군읍지

(건치연혁) 신라 문무왕이 상주와 하주 땅을 베어서 삼량주를 두었는데, 상주는 곧 지금의 상주이며, 하주는 곧 지금의 창녕이다. 삼한 모든 지역을 나누어 구주를 두니 삼량주는 그 중의 하나이다. 경덕왕이 양주로 고쳤고, 고려 태조가 다시 양주로 고쳤으며, 현종이 방어사를 두었다. 원나라 중서성에서 본국의 관청은 번거롭고 백성에게는 폐가 된다고 하므로 밀성에 합쳤다가 충렬왕이 전대

6) 『新增東國輿地勝覽』卷二十二, 慶尙道, 梁山郡

東至機張縣界 二十三里 至東萊縣界 十七里 南至同縣界 四十六里 西密陽府界 五十里 至金海府界 八十里 北至彦陽縣界 四十一里 距京都 九百六十六里. (建置沿革) 新羅 文武王 割上州下州之地 置插良州 景德王改良州 高麗太祖 改梁州 顯宗 置防禦使後元中書省 以本國繁民弊爲言 故併密城 忠烈王 復舊 本朝太宗朝 改今名爲郡十. (郡名) 插良州 良州 梁州 宜春 順定.

7) 『慶尙道邑誌』, 梁山郡

(建置沿革) 文武王 割上州下州之地 置插良州 上州即今之尙州 下州即今之昌寧 分三韓之地 置九州良即其一也 景德王改良州 高麗太祖改梁州 顯宗 置防禦使 後元中書省 以本國繁民弊爲言故併密城 忠烈王 復舊…(하략)… (郡名) 插良州 良州 梁州 宜春 順定.

로 회복하였다. 본조 태종조에서 지금 이름으로 고쳐서 군으로 삼았다…(하락)…⁸⁾

『삼국사기』권3, 『신라본기』, 비마립간 6년

봄 2월, 왜인이 삼랑성(插梁城)을 침범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는데, 왕이 별지와 덕지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길에 매복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을 공격하게 하여 대승하였다. 왕은 왜인이 자주 국경을 침범하므로 변경의 두 곳에 성을 쌓았다.⁹⁾

『삼국사기』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3년

13년(서기 673) 봄 정월, 커다란 혜성이 황룡사(皇龍寺)에 떨어졌다. 재성(在城, 도성을 이룸)에 지진이 났다. 강수(強首)를 사찬으로 삼고 해마다 벼 2백 섬을 주었다. 2월, 서형산성(西兄山城)을 증축하였다. 여름 6월, 호랑이가 대궁(大宮) 뜰에 들어와서, 잡아다 죽였다. 가을 7월 1일, 유신(庾信)이 죽었다. 아찬 대토(大吐)가 모반하여 당에 붙으려 하였으나, 일이 탄로나 사형을 당하였다. 그의 처와 자식들은 천민으로 만들었다. 8월, 파진찬 천광(天光)을 중시로 삼았다. 사열산성(沙熱山城)을 증축하였다. 9월, 국원성(國原城, 옛날의 완장성(亂長城)이다), 북형산성(北兄山城), 소문성(召文城), 이산성(耳山城), 수약주(首若州)의 주양성(走壤城, 혹은 질암성(迭巖城)이라 한다.), 달함군(達含郡)의 주삼성(主岑城), 거열주(居烈州)의 만흥사산성(萬興寺山城), 삼랑주(歙良州)의 골쟁현성(骨爭峴城)을 쌓았다.¹⁰⁾

8) 『輿地圖書』, 慶尙道, 梁山郡邑誌

(建置沿革) 新羅文武王 割上州下州之地 置插良州 上州即今之尙州 下州即今之昌寧 分三韓之地 置九州良即其一也 景德王改良州 高麗太祖改梁州 顯宗 置防禦使 後元中書省 以本國繁民弊爲言故併密城 忠烈王復舊 本朝太宗朝 改今名爲郡十

9)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 慈悲麻立干 6年

『新羅本紀』卷3, 慈悲麻立干 六年 春二月, 倭人侵歙良城 不克而去, 王命伐知德智, 領兵伏候於路, 要擊, 大敗之. 王以倭人屢侵疆, 緣邊築二城

10)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7, 文武王 13年

十三年春正月 大星隕皇龍寺 在城中間地震 拜強首爲沙滄 歲賜租二百石 二月 增築西兄山城 夏六月 虎入大宮庭 殺之 秋七月一日 庾信卒 阿滄大吐謀叛付唐 事泄伏誅 妻孥充賤 八月 以波珍滄 天光爲中侍 增築沙熱山城 九月 築國原城[古亂長城]北兄山城召文城耳山城首若州走壤城一名迭巖城達含郡主岑城居烈州萬興寺山城歙良州骨爭峴城 王遣大阿滄徹川等 領兵船一百艘 鎮西海 唐兵與靺鞨契丹兵來侵北邊 凡九戰 我兵克之 斬首二千餘級 唐兵溺瀟[盧]王逢二河 死者不可勝計 冬 唐兵攻高句麗牛岑城 降之 契丹靺鞨兵攻大楊城童子城 滅之 始置外司正 州二人郡一人 初太宗王滅百濟 罷戍兵 至是復置

『삼국사기』권34, 『잡지』3, 지리일

양주는 문무왕 5년(665), 인덕 2년에 상주와 하주의 땅을 분할하여 삼량주를 설치한 곳으로, 신문왕 7년(687)에 성을 쌓았는데 그 둘레가 1천 2백 60보이다. 경덕왕때 개명하여 양주(良州)라고 하고 지금의 양주(梁州)이다.¹¹⁾

『세종실록』권150, 『지리지』, 경상도, 경주부, 양산군

성황산 석성(城隍山石城)은 군(郡) 동쪽 5리에 있다. 둘레가 5백 69보인데, 그 안에 작은 시내가 둘, 작은 못이 넷, 샘과 우물이 넷이 있고, 또 군창(軍倉)이 있다.¹²⁾

『증보문헌비고』권127, 『여지도』14

성황산성은 석축으로 둘레가 사천삼백육십팔척이며, 높이는 육척이고 그 안에 우물이 여섯 연못이 둘이 있다.¹³⁾

Ⅲ. 신기리산성의 구조와 축조수법

1. 현황

신기리산성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읍 신기리 산 20, 북정동 산 20, 호계리 산 112,260번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면적은 157,074㎡로 성황산 정상과 그 인접한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97호로 지정되었다. 이 신기리산성은 국도 35호선에서 구 양산 IC선을 따라 올라오면 명곡천이 나오고 여기에서 신기리산성 안내판이 있는 명곡천을 건너 새로 난 비포장 임도를 1.5km정도 올라가면, 산성입구 경작지가 나오고, 여기에서 산 정상 쪽으로 올라오면 산성입구와 평탄한 구릉지 및 성내 경작지에 이르게 된다(도 2).

11) 『三國史記』卷34, 『雜誌』3, 地理一

良州 文武王五年 麟德二年 割上州下州地 置歙良州 神文王七年 築城 周一千二百六十步 景德王改名良州 今梁州.

12) 『世宗實錄』卷150, 『地理志』, 慶尙道, 慶州府, 梁山郡

城隍山石城 在郡東五里 【周回五百六十九步, 內有小溪二、小池四、井泉四, 又有軍倉.】

13) 『增補文獻備考』卷127, 『輿地考』14

城隍山城石築 周四千三百六十八尺 高六尺 內有井六池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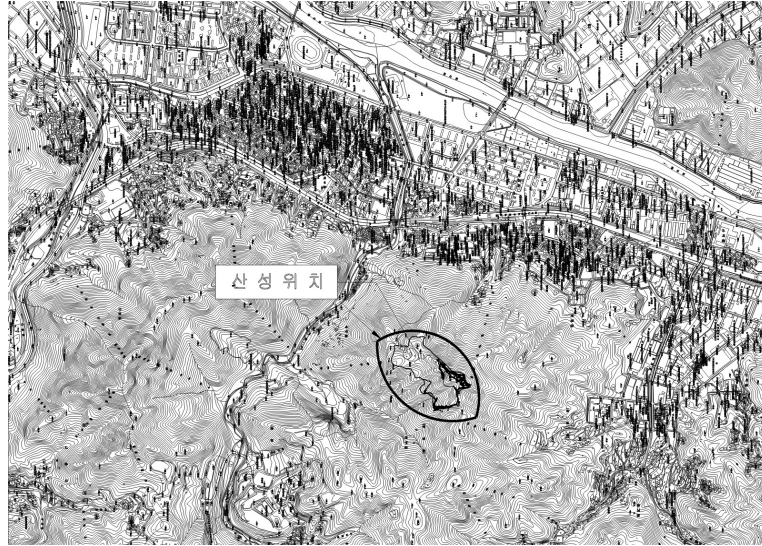
도 2. 신기리산성 및 주변 지형

신기리산성으로의 진입은 남쪽 신기리산성 안내판이 있는 명곡천을 건너 올라갈 수 있는 방향과 북서방향의 아래 아파트단지로부터 산책로를 따라 올라올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북쪽의 양산박물관 뒤에 정비된 양산 부부총, 금조총을 비롯한 신기, 북정고분군 뒤로해서 신기리산성으로부터 올라올 수 있는 방향, 그밖에 금계리를 포함하여 두세 곳 정도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이 신기리산성의 지형적 특징을 살펴보면, 성황산에서 낙동강의 지류인 명곡천이 위치한 위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산줄기를 따라 축조된 성으로 성벽은 해발 325m의 북쪽 정상부에서 가운데 평평한 구릉을 두고, 좌우 구릉을 따라 산을 둘러싸은 포곡식 성이다(도 3).

현재 잔존유구는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지대석 및 성벽 상부의 일부가 남아 있으며, 전체 둘레는 2.0km이고, 폭 2.5m, 잔존 최고 높이가 4m정도이다. 확인되는 부대시설 가운데 문지는 남문, 동문이 확인 가능하며, 동문과 남문의 육축부 축벽석이 일부 잔존하고 있다.

신기리산성은 성내외의 구릉을 이용하여 편축으로 축조되어 있고, 체성부 외벽 앞에는 일부지역에서 기단보축이 확인되고 있어 체성부를 보강한 형태의 성벽이 잔존하고 있다. 또한 침공하는 적들을 감시하고, 경계가 용이한 우각부에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지만 지형상 치상의 돌출성벽을 축조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삼국시대를 비롯한 고려, 조선시대 와편 및 도토기편이 발견되고 있다.



도 3. 신기리 산성 위치도

신기리산성의 성벽 중에서 가장 잘 남아 있는 부분은 남쪽, 서쪽과 북쪽, 동쪽 성벽의 부분별로 남아 있는데, 편축하였다.

체성부의 축조수법을 살펴보면 삼국시대 축조법과 고려, 조선 전기 및 후기의 축조법이 혼재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남쪽의 진입부에 있는 성벽은 지대석 위의 하단에 가로 60~90cm, 세로 45~60cm정도 되는 큰 성돌을 놓고, 위로 가면서 작은 성석을 놓고, 틈막이 돌을 이용하여 쌓았다.

이러한 방식은 조선후기 이후에 나타나는 축성법으로, 이 산성이 조선후기에도 사용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북서쪽의 성벽은 편축으로 가로 35~50cm, 세로 25~30cm정도의 석재를 장방형으로 일부 다듬은 다음, 가로선을 맞춰서 견고하게 바른층쌓기로 쌓고 틈들은 작은 성석으로 끼워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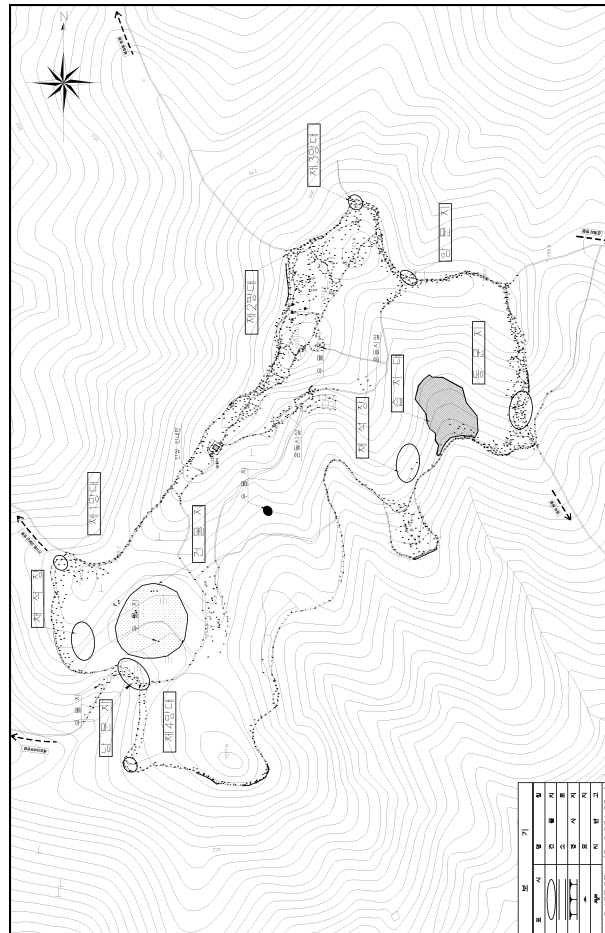
2. 구조와 축조수법

1) 남쪽 성내 건물지 및 주변

신기리에 소재하는 해강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성황산으로 오르면 산성의 남쪽 곡부(谷部)를 가로지르는 성벽이 나타나는데 이곳이 남문지로서 성벽을 사선상으로 타고 오르면서 성내에 진입한다. 성내 남쪽에는 성황사 쪽에서 남쪽으로 계속되다가 추정 제4망대 쪽으로 내려 온 능선이 완만한 대지상(臺地狀)을 이루고 있으며, 잔디가 조성된 이 지역에는 민묘와 팔각정과 안내판 등의 시설이

들어서 있다.

이 곳 대지상의 지형은 상하 2단으로 구분되는데 북쪽의 상단에는 민묘 사이로 초석으로 보이는 석재가 간간히 확인되며 이곳에서는 기와편과 타날문호, 토기편 등이 수습된다. 하단부의 대지도 남동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기와편과 토기편이 수습되고 있다. 이 곳 2단 대지의 서남쪽과 남문지 사이에는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그 남쪽도 대부분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밭둑 경계부분에 암반석이 놓여져 있는데 밭주인에 의하면 경작 시 옮겨 놓은 초석으로 보고 있다. 추정 초석 주변에서는 각종 와편과 토기편이 확인되는데 성내에서 가장 평탄한 지역으로 특히 조선시대 기와편과 백자편이 다수 확인된다(도 4).



도 4. 신기리산성 현황도

2) 남문지에서 제1망대사이 구간

남문지에서 서쪽으로 성벽을 따라 올라가면 대형의 암반이 노출되어 있고 암반을 떼어낸 흔적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 곳 주변의 성벽은 훼손되거나 붕괴되어 잔존상태가 불량하며 곳곳에 성벽에서 흘러내린 것으로 보이는 할석들이 흩어져서 나타난다. 또한 잡목이 우거져 있어 녹음기에는 성벽으로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다. 이 구간에서도 체성부가 잔존하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는데 기단부에 지대석을 설치하고 크기 30~40cm×20~25cm 정도의 판상형 성석과 장방형 반가공된 성석을 이용하여 허튼층쌓기로 축조되어 있다. 성석과 성석 사이에는 끼임돌을 넣어서 마무리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초축 및 수개축시에 사용된 석재를 이용하여 재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축조시기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신기리산성의 축조시기 가운데 가장 나중에 축조된 구역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제1망대로 추정되고 있는 서남쪽 모서리 부분은 지형상 양산시내 쪽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신기리고분군으로 통하는 소로가 연결되어 있다. 외벽 쪽으로는 30~40cm×20~25cm 크기의 성석이 확인되고 있으며 성 내측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주변에서는 고배편이나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외편이 간간히 확인된다. 이 구간은 양산시내 방면과 양산천의 하류 및 멀리 낙동강까지 잘 조망되어 과거 조사에서 망대지로 추정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금번 조사에서는 건물과 관련한 초석의 존재는 확인할 수 없으며, 지표상에서 확인되는 유물 가운데 기와편이 확인되고 있어 건물지나 망루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3) 추정 제1망루~성황사구간

추정 제1망루~성황사구간까지는 산성산 정상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능선에서 10~15m 아래쪽에 회곽도가 형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성벽은 뒷채움석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며, 할석으로 축조된 1.8~2m 높이의 성벽이 간간히 확인된다. 서쪽 능선부에는 성황사가 위치하고 있다. 성황사의 주변에는 성석으로 보이는 할석들이 담장석으로 둘러져 있으며 기와편이 곳곳에 산포되어 있다. 성황사의 서남쪽으로 안내관을 비롯한 가로등 및 인공시설물이 확인된다. 성황산 정상으로 오르는 길 주변에는 각종 잡목과 상수리나무가 어우러져 있으며 성황당이 위치한 서쪽 능선의 성벽 아래는 급사면을 이루고 있다.

4) 성황사에서 추정 제2망대 사이

성황사에서 추정 제2망대 사이에는 동문지 주변과 함께 성벽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 곳이다.

성황사 서북쪽의 제1구간과 제2구간 성벽은 대체로 50~60cm×10~20cm 크기의 판석상의 할석과 30~40cm×25~30cm 크기의 방형에 가까운 할석을 적절히 배치하여 옆 줄눈을 맞추듯 축조하였다. 현재 7~8단의 석축이 1~2m 정도 높이로 잔존하고 있으며 성벽은 판석상의 지대석을 배치하고 그 안쪽으로 20cm 들여서 방형과 장방형의 할석으로 쌓았으며 기울기는 약 80도의 완만한 궁형(弓形)을 이루고 있다. 성벽의 약 3m 안쪽으로는 할석을 종방향으로 채우면서 내탁식으로 축조하였다. 내벽은 확인되지 않으나 성내 회곽도의 지표를 기준으로 하면 성벽의 높이는 320cm에 이른다.

5) 추정 제2망대 남서쪽 추정연못지 주변

추정 제2망대 남서쪽 추정연못지 주변의 제1구간 석축은 약 1.7m 정도 높이로 잔존하며 성황사 서북쪽의 제1~2구간 성벽과는 달리 간혹 판석상의 할석이 보이거나 35~40cm×25~30cm 크기의 방형에 가까운 할석과 다각형의 할석을 주로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다각형의 할석을 사용하면서 생긴 틈은 10~15cm 정도 크기의 잡석을 끼워 축조하였다. 성벽석의 옆줄눈은 통하지 않으나 각 성돌은 수평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대석 안쪽으로 10~15cm 정도 들여서 성벽석이 축조되었다. 할석사이로 잡석끼움쌓기한 수법이 관찰되므로 수축된 성벽으로 추정된다. 한편 성벽 일부에서 축조구분선인 수직 단절선이 2곳에서 확인되었는데 그 거리는 10.5m이다.

추정연못지의 서쪽 2구간 성벽중 양호한 석축은 약 2.5m의 높이를 보이고 있으며 회곽도의 지표를 기준으로 하면 성벽의 높이는 4m에 이른다. 이 곳 성벽도 판석상의 기단석을 배치하고 그 안쪽으로 20cm 정도 들여서 방형과 장방형의 할석으로 옆줄 눈을 맞춰 쌓았으나 다른 곳에 비하여 방형에 가까운 장방형 할석을 다수 사용하였으며 위쪽으로 갈수록 작은 돌로 축조하였다. 성벽의 단면은 궁형을 이루고 있으며 내부는 할석으로 뒷채움하였는데, 성벽 내측으로 약 3m까지 뒷채움석이 확인된다.

6) 추정 제2망대지점

추정 제2망대지점 주변 체성부 일대는 북정동 방향에서 올라오는 소로의 정상에서 약 10m 가량 떨어진 곳이다. 이 지점은 성벽 체성부에서 외곽 쪽 5m 지점부터는 급한 자연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자연적으로 성벽이 내벽 쪽으로 약간 내만하듯 곡선을 이루고 있다. 잔존하는 체성부의 높이는 대략 3.5~4m 가량이

며 체성부의 외벽은 부분적으로 유실되어 확인되고 있다. 이 지점에서는 양산시의 북쪽과 경부고속국도가 관망되며, 주변에서 각종 토기편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 지점의 내탁부는 넓게 평탄지를 이루고 있으며 과거 건물지 및 연지 등이 조성될 수 있는 위치로 판단된다. 이후 추정 제3망대 지점까지는 성 바깥쪽으로 급사면을 이루고 있으나 성벽은 많이 훼손된 상태이며 체성부의 외벽 기단부에서 지대석 및 외벽 기단보축이 확인되고 있다(도 5·6).



도 5. 신기리산성 북서벽 체성부 잔존상태



도 6. 신기리산성 북서벽 체성부 기단부 세부

7) 추정 제3망대지점

추정 제3망대지점은 북정동 쪽에서 산성으로 올라오는 소로가 있으며 급한 사면을 이루고 있어 로프가 설치되어 있다. 전체적인 지형은 성 바깥쪽으로 약간 돌출된 듯하나 역시 굴곡된 성벽이나 돌출된 성벽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다만 토기편과 기와편이 일부 확인된다. 양산시의 북쪽이 잘 조망된다.

8) 추정 동문지 북쪽 경사면 구간(제3망대 기준)

추정 제3망루 남쪽의 곡부를 지나 추정 동문지 쪽 능선상의 석축 일부를 보면 성황사 주변의 석축과 같이 성벽은 높이 1m정도 잔존하고 있으며 성벽은 판석상의 지대석을 배치하고 그 안쪽으로 20cm 들여서 30~35cm×20~25cm 크기의 장방형의 할석으로 옆줄 눈을 맞춰 쌓았다. 성벽의 아래쪽에는 성벽이 일시에 외벽 쪽으로 무너진 듯 상당량의 흘러내린 할석이 확인된다.

9) 동문지 북쪽 경사면 성벽

동문지 북쪽 경사면에는 성벽이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는데 성벽은 약 3m 정도 높이로 잔존하고 있다. 지대석은 확인되지 않으나 다른 곳의 성벽과 마찬가지로 지대석을 배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벽은 대체로 30~50cm×20~30cm 크기의 장방형의 할석을 이용하여 성석을 경사지게 쌓지 않고 10~15cm 크기의 잔돌을 끼워가며 수평상으로 옆줄 눈을 맞춰 쌓았다. 단면상에서 보면 성벽의 면석은 중평적과 횡평적을 교대로 하였으며, 상부로 올라 갈수록 안쪽으로 기울여 들어 쌓은 듯하다. 단면을 통해 뒷채움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성벽석에 가까운 크기의 할석을 이용, 성벽이 붕괴되더라도 뒷채움석이 서로 물고 있도록 중방향으로 뒷채움하였다.

10) 동문지

동문지는 산성의 동북쪽 성벽이 동남방향으로 급하게 경사져 내려오다가 잠깐 멈추는 평지를 이루는 곳에서 확인되었으며 명곡방향과 금계리 방향 쪽으로 통하는 길과 연결된다. 체성벽의 외벽은 2~3단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며 내벽과 측벽은 대체로 1~3단 정도의 석열이 확인된다.

문지 외측에서 볼 때 향우측 북쪽 경사면 쪽으로 30~45cm×20~30cm 크기의 1열의 할석열이 성벽과 직교하여 내벽 쪽으로 10m 정도 길이로 확인되며 이 석열에서 남측으로 5.1m 지점에서 성벽과 직교되는 길이 약 8m의 석열이 확인된다. 따라서 문지의 폭은 5.1m 내외이며 문지 좌우 성벽의 폭은 약 680cm 정도로 다른 곳에 비하여 두꺼운 편이다. 그러나 문지 측벽의 상태를 볼 때 전체

적인 평면 형태는 외벽 쪽으로 문지 좌우 측벽에 마치 적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약 120cm 정도가 외벽 쪽으로 돌출된 평면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도 7).



도 7. 신기리산성 동문지 육축부 잔존상태(남측벽)

11) 동문지~동문지 남쪽 돌출성벽

동문지에서 남쪽으로 약 250m 지점으로는 평면상 성벽이 약간 동쪽으로 돌출된 부분이 있는데 명곡 쪽 완만한 능선상에 난 등산로가 지나가고 있다. 이



도 8. 신기리산성 동문지 북쪽 체성부 외벽 축조상태

곳 성벽의 대부분은 허물어졌으며 치나 능선을 가로 지르는 황(隍)은 확인되지 않았다. 돌출된 성벽에서 서남쪽으로 연결되는 성벽은 비교적 급한 경사면에 성벽이 축조되어 있어 대부분 외벽 쪽의 체성벽 상부는 무너져 내린 상태이며 일부 내벽 쪽으로 뒷채움석만 확인되는 곳도 있다(도 8).

12) 동문지 남쪽 습지대 주변

동문지 남쪽의 돌출된 성벽을 기준으로 하여 약 70m 지점에는 성내 정상부에서 곡간으로 흘러내리는 습지대가 확인된다. 이 곳 습지대 내에는 성내 쪽으로 퇴적된 빨상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습지식물이 밀생되어 있는 상태이다. 습지의 곡간부분에는 성벽석이 확인되고 있어 성벽 아래에는 수구(水口)가 반드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상부 성벽이 무너져 내려 곡간을 메우고 있는 상태로 수구의 존재를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이다.

곡간 남측에 일부 잔존한 성벽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곳의 성벽은 45~70cm×20~25cm 크기의 판석상의 할석과 35~40cm×20~25cm 크기의 방형에 가까운 할석으로 옆 줄눈을 맞추듯 축조하였는데 7~8단의 석축이 잔존한다(도 9~12).



도 9. 신기리산성 동벽 체성부 외벽 잔존 상태 근경



도 10. 신기리산성 동벽 체성부 외벽 축조상태 세부(아래에서 1~7단 삼국시대 내지 통일신라시대 축조, 8~18단 사이는 여말선초, 그 위로는 조선시대 후기로 추정)



도 11. 신기리산성 동벽 체성부 외벽 퇴물림 축조상태



도 12. 신기리산성 동벽 체성부 잔존상태

13) 채석장

습지대의 잔존석축에서 서남쪽으로 약 70m 지점에는 설상대지가 확인되는데 이 구간에서는 성내 회곽도 안쪽의 비교적 완만한 사면에 암괴들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 이 암괴는 대부분 석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떼어낸 흔적을 보이고 있어 신기리산성 성벽의 축조 시 이들 암석을 잘라서 성석으로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 암반군은 성내 암반군 중에서는 가장 큰 것으로 성벽석의 채석이 이루어진 장소로 추정된다.

14) 채석장 남쪽 성벽

추정 채석장의 남쪽 설상대지에는 민묘로 보이는 묘와 묘의 축대가 곳곳에서 확인된다. 성벽은 평면상 이곳에서 서북쪽으로 굽어 돌아가는데 제1구간의 경우 석축은 일부 50~60cm×30cm 크기의 비교적 큰 할석과 25~30cm×20~25cm 크기의 방형에 가까운 할석을 잔돌끼워 가며 수평상으로 축조하였는데 간혹 다각형의 할석을 끼워 마름모상으로 쌓은 곳도 확인된다.

한편, 이곳에서 남쪽으로 10m 떨어진 설상대지(舌狀臺地)의 남측면에는 잔존 높이 약 3m 정도의 양호한 성벽 약 10m 정도가 확인되었다. 성벽은 하부에 지대석을 배치하고 지대석에서 약 10~15cm 정도 들여서 성벽을 축조하였는데, 단면은 완만한 궁형을 이룬다. 이곳의 석축은 40~50cm×25~30cm 크기의 방형에 가까운 할석으로 잔돌을 끼워가며 옆 줄눈을 맞추듯 축조하였는데 간간이 삼각형 또는 오각형상의 할석이 확인된다.

성벽은 지표상에서 약 1m 상부까지 하부는 비교적 직사각형과 방형상의 석재가 수평상으로 비교적 정연하게 축조된 느낌을 주고 있으나 상부는 한번 수축이 있었던 듯 하부에 비하여 석축사이의 틈이 많으며 석재도 수평을 보이지 않는 곳이 많다. 입면상으로 성벽에는 간혹 수직상으로 확인되는 단절선이 보이는데 확실한 곳은 약 8.4m 정도 간격을 보이고 있으나 이 구간 내에서도 부분적으로 상하의 단절선이 일부 확인되어 정형성 있는 간격은 보이지 않는다.

15) 제4망대 주변

채석장 남쪽 성벽에서 서남쪽 추정 제4망대까지의 성벽은 비교적으로 경사가 급한 지역으로 성내 중심부 2단 대지상의 지형에서 조사된 건물지의 동쪽 사면 아래에는 완만한 곡부를 이루고 있어 습지로서 연못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이곳에서 남쪽 4망루 쪽으로 성벽은 완만하게

굽어지는데 성벽은 대부분 유실되고 잡목사이로 뒷채움석이 확인된다. 일부 양호한 구간의 석축은 30~35cm×20~25cm 크기의 방형에 가까운 할석을 이용하여 잔돌을 끼워가며 수평상으로 축조하였으며, 잔존 높이는 2m 내외로 성벽의 단면은 완만한 궁형을 이룬다.

추정 제4망대 지역은 남서쪽으로 깊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북부동산성과 마주보는 위치로 멀리 낙동강까지 조망되며 양산시가지의 남쪽이 양호하게 조망된다. 이곳에서는 타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평평한 대지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망이 좋아 망루의 입지로서는 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암반으로 보이는 석재가 2곳에서 확인되었을 뿐 초석으로 볼 수 있는 석재나 외편들이 확인되지 않아 망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으며 망대로서의 역할만이 있었을 곳으로 추정된다. 추정망대지의 내측으로는 약간의 대지가 형성되어 남문지 쪽으로 난 회곽도와 연결된다.

16) 추정 남문지

양산 신기리의 해강아파트 방향에서 산성의 서남쪽 꼭부를 북쪽으로 돌아 계곡부를 따라 오르면 추정남문지에 이르게 된다. 남문지는 현재 잡풀과 무너진 체성부로 인해 정확한 양상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현 양산 시내에서 가장 오르기 좋은 등산로이며 추정문지 안쪽이 산성 내에서 가장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



도 13. 남문지 근경

으며 초석으로 추정되는 석재와 기와편, 토기편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주 출입구로서 문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문지를 기준으로 성내로 진입하는 등산로 주변은 경작지와 가건물등이 들어서 있어 지속적인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지는 성내에서 조사되는 유물의 출토상황을 감안하면 후대에 폐쇄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평면상에서 개구부를 비롯한 문지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유구는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성내외의 고저차가 있어 신라시대 산성의 문지 가운데 하나인 현문(懸門)의 가능성을 추측할 뿐이다(도 13).

17) 망루(望樓) 또는 망대(望臺) · 치(雉)

성벽은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축조된 관계로 전체 성벽선 중에서 지형상 치와 같이 돌출된 부분이 곳곳에 있다. 그 중 조망이 양호하며 주변에서 기와나 토기편이 확인되는 곳은 크게 남쪽 건물지 서편 추정 제1망대, 성황사 북쪽 추정 연못지 서편의 추정 제2망대, 제2망대 북편의 추정 제3망대, 남문지 동편의 추정 제4망대 4곳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추정 망대지에서는 성벽의 치상유구나 굴곡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아 치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기와편이 수습되어 망루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시기 차이가 나는 와편이 혼재되어 있거나 그 출토량으로 볼 때 망루보다는 망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18) 수구(水口)

신기리 산성은 기본적으로 계곡을 포함한 포곡식산성으로 축조되어 있어 성내의 배수가 중요하였을 것이다. 『世宗實錄地理志』에는 정천(井泉)이 4곳,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성내에 우물 6곳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현재도 동문지 남쪽에서는 성내 정상부에서 연결된 골짜기를 통하여 흘러내린 물이 습지대를 이룬 곳이 확인되며 습지를 가로지르는 성벽선이 확인되고 있다. 금번 조사에서 수구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제4망루지의 동북쪽에도 골짜기를 형성하고 성벽이 가로지르는 부분과 추정 제2망루지 남서쪽 추정 집수지 주변은 정상부 쪽에서 흐르는 우수가 자연히 모이는 곳으로 수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과거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곳은 대부분 체성부 성벽이 무너져 내려 체성부 외벽과 곡간을 메우고 있는 상태라 시굴 및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해당지역에 대한 시굴,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9) 건물지

2006년 조사에서 산성 내에 현존하는 건물로 성황사가 유일하며, 성내 건물지로 추정되는 곳은 크게 2곳으로 파악하였다. 금번 조사에서 확인된 건물은 성황사 이외에도 성내 남쪽 성황사 쪽에서 내려오다 추정 제4망대 쪽으로 내려오는 2단의 대지에서는 초석이 확인된 지점 근처에 팔각정이 설치되어 있고 주변에 화장실과 용도 미상의 각종 창고 및 거주지가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다.

과거 조사에서 석재와 기와편, 토기편 등이 수습되었고 지형상 요지에 해당하여 중요한 관청건물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구역에는 각종 경작지와 가건물이 설치 원지형의 훼손 및 매장문화재의 파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2단의 대지 서남쪽과 남문지 사이에는 비교적 완만한 경사지에서도 초석으로 추정되는 석재들이 지표에 박혀 있으며 추정 초석 주변에서는 각종 와편과 토기편이 확인되어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보이는 군창(軍倉) 등과 성내 주거공간이 이들 지역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다른 건물지는 서벽의 제2망대와 신기리고분군에서 성내로 진입하는 등선로 입구 사이 지점 성벽의 회곽도 뒤쪽에 완만한 평탄대지 일대가 있고 이곳에 일부 석축으로 추정되는 석열이 확인되고 있어 건물지로 추정된다.

20) 우물

『世宗實錄地理志』에는 정천(井泉)이 4곳,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성내에 우물 6곳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 성내에서 확인되는 우물지는 남문 안쪽의 추정건물지 중앙지점과 남문지를 기준으로 현재 통행로로 이용 중인 남서쪽 체성부 외벽 바깥쪽지점과 성황사 동북쪽 현재의 약수터 2곳 정도가 확인되며 연못지 주변과 습지 주변에도 다수의 우물터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21) 연못

『世宗實錄地理志』과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연못 2곳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동문지 남쪽에서는 성내 정상부에서 골짜기를 통하여 흘러 내린 물이 습지대를 이룬 곳이 있는데 현재는 습지 내에 가건물 및 세척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포석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습지대로 알려진 곳에서 수구는 현재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성내에서 성외로 물

이 계속적으로 흘러내려 곡부에 자연 개울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남문지 지역은 지형적으로 골짜기를 이루고 있고 인근에 추정 건물지와도 가까워 연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며 현재도 연못이 조성되어 있다.

IV. 신기리산성과 삼량성에 대한 검토

이상으로 양산 신기리산성의 구조와 축조수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럼 여기에서는 양산 신기리산성의 조사현황을 중심으로 고고학적 특징을 살펴보고 아울러 삼량성에 관해서 검토해보도록 한다.

신기리산성을 고찰함에 있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은 입지이다. 고대국가에 있어 성곽의 축조는 많은 인력과 자원이 소요되는 중요한 국가적인 사업이었으며, 축성 못지않게 방어에도 많은 인력과 물자를 필요로 하였다. 그러므로 필요 이상의 큰 성을 쌓거나 혹은 전략적인 기능이 떨어지는 지점에 성을 축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¹⁴⁾ 따라서 이때의 성곽 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어력을 높이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력과 자원을 최소화하여 축조할 수 있으며, 주변을 감제할 수 있는 지점을 선호하였다.

따라서 양산과 인접한 경주를 비롯한 인근지역의 신라성의 절대고도를 살펴보면 200m 이하가 5개소로 36%, 201~300m 높이에 있는 성곽이 5개소로 36%, 300m 이상이 4개소로 29%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경주지역의 신라성곽이 해발 300m 이하에 집중적으로 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산 신기리산성은 해발 330.6m의 성황산의 북서쪽 일부 산정을 둘러싸고 해발 260~300m 내외의 동남쪽의 곡부를 포함하는 포곡식산성(包谷式山城)으로 축조되어 있어 역시 경주지역 신라성과 비슷한 고도상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신라성곽은 체성 둘레가 1,000m 이상이며 2,000~4,000m사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양산 신기리산성은 둘레 약 2.6km로 확인되고 있어 경주지역 신라성곽의 둘레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양산 신기리산성 체성부는 현재 대부분이 허물어졌으나 성황사 서북쪽구간을 비롯하여 동쪽 및 남벽에서 양호한 석축이 확인된다. 기존 확인된 성벽은 대체로 판석상의 지대석을 배치하고 10~15cm 정도 안쪽으로 들여서 50~60cm

¹⁴⁾ 심광주, 『二聖山城의 築城技法과 機能』, 『博物館誌』, 漢陽大學校博物館, 2000, 19쪽.

×10~20cm 크기의 판석상의 할석과 30~40cm×25~30cm 크기의 방형에 가까운 안산암계 할석을 적절히 배치하여 옆 줄눈을 맞추듯 축조하였다. 할석과 할석사이에 생긴 틈새에는 10~15cm 정도 크기의 잡석을 끼워 축조하였다.

한편, 추정 제2망대 남서쪽 추정 연못지 주변과 채석장 남쪽 일부구간의 석축은 35~40cm×25~30cm 크기의 방형에 가까운 할석과 다각형의 할석을 주로 이용하여 성벽석의 옆 줄눈이 통하지 않는 점에서 수축된 성벽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14년 동벽 채성부에서 통일신라시대를 전후한 성벽이 확인되었다. 이 성벽에는 외벽기단보축으로 추정되는 석축이 설치되어 있고 35~40cm×25~30cm 크기의 방형과 장방형의 할석을 이용하여品茶형의 바른층쌓기를 실시하고 기단부에서부터 내벽쪽으로 약 5cm 간격으로 들여쌓기를 실시한 높이 1.7m(전체 3.2m)가량이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외벽면석의 축조수법에 있어서도 신라성곽의 성벽은 기본적으로 줄을 맞추어 쌓는 바른층쌓기를 하였으며, 크기가 정연하고 다듬어진 성석을 사용하기 때문에 췌기돌을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더구나 성석의 줄눈은 아랫단과 윗단이 일치하지 않도록 대체로 6 : 4 정도의 지점에서 맞물리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곳에서 확인된 채성부의 축조수법이 이러한 신라성곽의 축조수법에 부합되거나 일치하고 있어 신라성의 축조전형이 일정부분 완성된 후 축조된 성곽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외 지역의 외벽석은 35~40cm×25~30cm 크기의 방형과 장방형 석재 등 다양한 크기의 할석을 이용하였는데 경사가 심한 부분은 주로 장방형 석재를 이용하였다. 또한 외벽석에 사용한 석재는 상부와 하부의 크기에 차이가 없으며, 성석 사이에는 끼임돌을 사용하여 매우고 있다. 또 면석부분을 외벽쪽으로 하고 있으며 수평을 유지하려 하고 있으나 정연하지 않다. 더구나 윗단과 아랫단이 일치하게 쌓여지는 부분들도 보이고 있다.

성벽의 외벽에서 2.5~3m 정도 안쪽까지는 할석을 종방향(縱方向)으로 채우면서 뒷채움 하였으며, 대부분 내벽이 확인되지 않아 일단 내탁식(內托式) 편축(片築) 석성으로 파악된다.

성벽의 높이는 외벽의 경우 잔존높이가 1~3m정도로 대부분 허물어졌으나 높은 곳은 성내 회곽도의 지표를 기준으로 하면 4m에 이르러 최소 4m 이상으로 추정된다.

성벽의 기울기는 동문지 북측 경사면과 동벽 습지대 채성부 석축에서와 같이 안으로 약간 기울여 쌓거나 5cm 간격으로 들여쌓기를 실시한 구간도 있으나 많은 구간의 성벽은 약 80°로 완만한 궁형(弓形)을 이루고 있다.

표 1. 경주지역의 신라성곽

유적명	해발	둘레	축성방법	성곽형태	부대시설	비고
도당산토성	101m	1,100m	토축	테피식		높이 4m
남산토성	134m	1,250m	토석혼축	테피식 (장타원형)		외벽 높이 5m, 내벽 높이 1.5m, 상부 너비 4.4m
고허성	433m	1,400m	석축	포곡식		높이 3.6m, 너비 6m
관문성	273m	10,900m	석축	장성		높이 20m
남산신성	276m	3,700m	석축	포곡식		
명활산성	266m	4,500m	석축	포곡식	문지 7개소, 수문지 4개소, 건물지 6개소, 못 2개소, 해자 확인	외벽 높이 1.1~1.8m, 너비 3~3.7m, 축성당시 높이는 10步, 내황 너비 4m,
명활산성토성	266m	3,600m	토축	테피식	문지 3개소, 수문지 1개소	외벽 높이 3.6m, 내벽 높이 1.5m
부산성	730m	7,500m	석축	포곡식	성문지 4개소, 우물 4개소, 연못 2개소, 암문지 1개소, 치성 2개소	높이 2m
북형산성	258m	1,800m	토축			
서형산성	380m	3,000m	토석혼축	복합식		높이 1~1.5m, 기저부 폭 9m
신대리성	583m	1,700m	석축	포곡식	성문지 4개소, 수문지 3개소, 건물지 3개소	
안강구성	29m	2,100m	토축	테피식		기저부 폭 2m, 상부 폭 1m
양동리산성	164m	900m	토축	테피식	남문지, 우물	기저부 너비 2.4m, 높이 3m, 내황 3.5m
작성	136m	2,100m	토축	테피식	성문지 4개소, 저수지 1개소	내벽 높이 4m

이상의 양상을 기준으로 신라성곽의 체성부 면석 및 축조수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정연한 면석가공을 들 수 있는데¹⁵⁾ 신기리산성의 경우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지역의 체성부에 사용된 석재가 대부분 할석 내지는 조잡한 가공석과 세장방형의 석재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동벽 일부지점에서 장방형의 정연하게 치석한 석재로 축조된 구간이 확인되고 있어 산성에 대한 전면조사가 이루어져야 신기리산성의 체성부 면석 및 축조수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신기리산성 체성부에 사용된 석재는 신기리산성 인근의 안산암 계통으로 부분 및 전면 가공하여 외벽면석에 사용하고 있으며 내부 적심부에는 암

¹⁵⁾ 석축성의 면석은 가공정도에 따라 자연석, 할석, 조잡한 가공석, 절석가공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반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채석장에서 확인되는 암반 조각들로 적심하였다.

두 번째로 보축성벽의 경우 아차산성, 대모산성, 이성산성, 반월산성 등 경기도 지역의 대부분의 신라성곽과 경주 명활산성, 김해 양동산성, 남해 대국산성, 거제 폐왕성, 함안 성산산성, 거창 거열산성 등 신라고지 및 백제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신기리산성의 경우 서벽과 동남벽 일부에서 확인되는데 정밀조사가 아니라 그 정확한 형태를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평면 방형으로 추정되는 보축성벽이 일부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보축성벽은 외벽 기단부를 보호 또는 보강하기 위해 기단부 전면에 체성부의 축조석재와 비슷하거나 약간 작은 할석과 점토를 다져 올린 것으로 확인되는데 앞서 언급한 신라산성에서 확인되는 보축성벽¹⁶⁾에 비하면 조잡하다. 또한 석재만을 이용하여 쌓아 올린 것으로 흔히 성벽이 붕괴되면서 성벽 상부에서 떨어진 석재로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외벽 기단석에 붙여져 있는 점에서 인위적으로 축조된 것으로 파악된다. 남해 대국산성의 외벽 체성부에서 확인된 보축시설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신기리산성의 외벽 하단에서 확인된 석축은 신라의 전형적인 단면 삼각의 보축성벽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기리산성에서 문지로 추정되는 곳은 동문지와 남문지 2곳이다. 동문지의 경우 산성의 동북쪽에서 동남쪽으로 경사져 내려오는 능선이 약간 평지를 이루는 곳에서 확인되었다. 서북쪽으로 상북정과 호계천 쪽으로 통하는 길과 연결되고 동쪽과 동북쪽으로 명곡과 금계리방향에서 성으로 오르는 길과 연결된다. 현재 잡목과 잡초가 우거져 그 정확한 윤곽을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대략 문지의 폭은 5.1m 내외이며 문지 좌우 성벽의 폭은 약 6.8m 정도로 다른 곳에 비하여 두꺼운 편이다. 그러나 문지 측벽의 상태를 볼 때 전체적인 평면 형태는 외벽 쪽으로 문지 좌우 측벽에 마치 적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약 1.2m 정도가 외벽 쪽으로 돌출된 평면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외벽에 잔존하는 체성부는 후대에 수개축이 이루어져 덧대어져 있는 것처럼 파악된다. 동문지는 초축 이후 증개축이 진행되며 현문식 문지에서 개거식 문지 등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¹⁶⁾ 경기도 파주 칠층성의 조사에서 칠층성의 체성부 추정 높이를 대략 10m로 외벽기단보축성벽의 높이를 체성의 1/3, 또는 1/2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하여 최소한 4m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외벽기단부보축은 한강유역 일대 신라 산성에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대체로 7세기대로 편년하고 있다. 따라서 칠층성을 포함하여, 양주 대모산성, 서울 아차산성, 포천 반월산성 등의 외벽기단부보축 성벽을 7세기경 신라 보축성벽의 특징이라고 보고 있다.

추정 남문지의 경우 현 양산시내에서 오르는 등산로와 연결되며, 추정문지 안쪽이 산성 내에서 가장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주변에서 초석으로 추정되는 석재와 기와편, 토기편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주 출입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사용과정에서 개구부의 훼손이 심해 정확한 양상은 파악하기 힘들다. 다만 잔존하는 체성부의 양상으로 볼 때 성내외의 고저차이가 확인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역시 현문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외 추정 제3매대지에서 동문지 사이의 곡부에 약간의 개구부가 형성되어 있어 암문의 존재를 추정하여 볼 수 있다.

신라성곽의 성문은 현문식 성문이 일반적이다. 현문은 체성벽을 일정한 높이까지 쌓고 성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다리를 놓지 않고는 출입이 곤란한 형태이다. 이러한 현문은 고구려성이나 백제성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신라성의 특징으로 이해되고 있다.

신라성곽의 현문으로 그 형태가 잘 남아 있는 것은 영월 왕검성의 동문지로 개구부의 높이가 2.4m, 너비가 3m 정도이며, 충주 남산성 동문지는 개구부의 높이가 4.5m로 매우 높고 너비는 4.6m이다. 이성산성의 동문지는 개구부의 높이가 3.5m이며 너비는 6m 정도이다. 이처럼 현문식 성문을 만드는 것은 문구부로 인한 방어상의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나, 현문의 경우 현실적으로 아군에게도 성내로 자유로운 출입을 제약하기 때문에 필요시 사다리 같은 출입시설을 내렸다 올렸다 하였을 것이며, 이천 설봉산성이나 이성산성처럼 별도의 등성시설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삼량성과 관련해서 살펴본다. 삼량성과 관련하여 『三國史記』, 慈悲麻立干 6年조를 살펴보면, “春二月, 倭人侵敵良城, 不克而去, 王命伐知德智, 領兵伏候於路, 要擊, 大敗之. 王以倭人屢侵疆, 緣邊築二城.” 이라 되어 있다. 즉 봄 2월에 왜인이 삼량성을 침범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기사에서 삼량성이 언급되어 있다. 즉 이것은 삼국시대 양산지역에 성곽이 축조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자비마립간 때의 삼량성은 왜인이 침입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일명 “삼량성”으로 불리웠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三國史記』, 文武王 13年 十三年 春正月 기사에는 “문무왕 13년(서기 673) 8월, 사열산성(沙熱山城)을 증축하였고 9월, 국원성(國原城, 옛날의 완장성(蕪長城)이다.), 북형산성(北兄山城), 소문성(召文城), 이산성(耳山城), 수약주(首若州)의 주양성(走壤城, 혹은 질암성(迭巖城)이라 한다.), 달함군(達含郡)의 주잠성(主岑城), 거열주(居烈州)의 만흥사산성(萬興寺山城), 삼량주(歆良州)의 골쟁현성(骨爭峴城)을 쌓았다.”고 되어 있다.

이 기록 가운데 9월에 삼량주의 골쟁현성을 쌓은 것이 확인는데, 즉 양산지역에 골쟁현성으로 불리우는 성곽이 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三國史記』卷34, 『雜誌』3, 地理一의 기사에 “良州 文武王五年 麟德二年 割上州下州地 置敵良州 神文王七年 築城 周一千二百六十步 景德王改名良州 今梁州”라 하여 “양주는 문무왕 5년(665), 인덕 2년에 상주와 하주의 땅을 분할하여 삼량주를 설치한 곳으로, 신문왕 7년(687)에 성을 쌓았는데 그 둘레가 1천 2백 60보이다. 경덕왕때 개명하여 양주(良州)라고 하고 지금의 양주(梁州)이다.”라고 하였다. 이 기사에 따르면 삼량주에 신문왕 7년에 성을 쌓았고 그 둘레가 1천 2백 60보로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축조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삼량성은 자비마립간 6년(463) 이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기사 내용상 확인이 되고 골쟁현성은 문무왕 13년(673)에 축조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또한 신문왕 7년(687)에 삼량주에 성을 쌓았다는 기사가 확인되는데 그 둘레가 1,260보라고 하였다. 따라서 삼국시대 양산지역인 삼량주에는 삼량성과 골쟁현성, 그리고 무명의 성이 축조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위의 기사내용을 바탕으로 최근까지 조사된 양산지역 성곽의 고고학적 성과를 중심으로 삼량성의 위치에 관해서 살펴보자.

우선 자비마립간 6년에 왜인의 침입을 받은 삼량성은 어디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때의 삼량성은 현재 행정구역상 양산시 상북면 순지리에 위치하였던 순지리토성으로 비정된다. 즉 산성산 정상(표고 213m)을 중심으로 서사면 계곡부를 성내로 삼고 축조된 포곡식산성인 순지리토성은 소위 유사판축기법으로 축조되어 있으며 하부에 폭 4m 크기의 목책 내지 목주 가구의 흔적이 1m 간격으로 두줄로 확인되는 성곽으로 출토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그 축조 년대가 대략 5세기 전반 이전에 축조된 것¹⁷⁾을 고려하면 자비마립간 6년 당시의 양산지역의 국방상 요충지로 왜인 침입이 언급되는 순지리 토성을 삼량성으로 비정할 수 있겠다. 또한 순지리토성은 그 입지에 있어서도 낙동강 하구에서 육로를 이용해서 연양, 경주방면으로 이동하려면 자연히 토성 아래를 통과해야 하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인근에 통도사와 조선시대에는 성천원이 설치되어 교통의 요지임을 방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때 왜인들의 침입을 받은 삼량성의 군사적 방비를 강화하기 위해 이후에 자비마립간이 연변 두 곳에 성을 쌓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의 연변의 두 성곽은 아마도 가야와의 경계이며 왜인들이 낙동강을 거쳐 양산천을 이용해 경주로 이동하는 것을 감제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낙동강

17) 심봉근, 『신라성과 고구려성』, 『韓國文物의 고고학적 이해』, 2005, 501쪽.

변을 끼고 있는 구릉 및 산상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조건에 가장 부합되는 곳이 양산 신기리산성과 북부동 산성이다. 즉 신기리산성과 북부동 산성은 낙동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감제고지에 축조되어 있으며 지금의 경부고속국도를 통해 언양, 경주로의 진출입로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축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 문무왕 13년(673)에 축조한 골쟁현성을 살펴보자. 이 축성기사 내용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점은 문무왕 13년인 통일기에 양산에 성곽을 축조한 배경과 명칭을 골쟁현성이라 한 것이다. 즉 통일신라의 문무왕이 백제부흥운동을 진정시키고 668년 고구려 멸망 이후인 이 시점에 삼랑주 즉 양산지역에 새롭게 성곽을 축조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신라의 수도 경주의 남쪽 관문인 양산지역에 성곽을 새롭게 축조할 만큼 긴박한 일이 발생한 것일까? 아님 통상적인 관방체계의 정비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시 당나라와 통일전쟁 중인 신라의 입장에서 백제지역에 주둔한 당군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축조한 것이거나 남해를 거쳐 울산, 양산지역으로 침입할 수 있는 당나라 수군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한 것 일 수도 있다. 아울러 663년 백강전투 이후 재침이 우려되는 왜와 백제부흥세력에 의한 배후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경주의 관문에 해당하는 양산지역의 중요도로 볼 때 신라에 의한 성곽의 축조는 이때 당시의 복잡한 대내외적인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헌에서 확인되는 또 다른 양산의 성곽 축조는 신문왕 7년(687)에 삼랑주에 성곽이 축조되고 있는 것으로 이 성곽의 명칭은 확인되지 않지만 그 둘레가 1,260보로 기록되어 있어 일반적인 산성이라기보다 주치소성에 해당하는 성곽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언급된 1,260보는 현재 1보가 일반적으로 6척으로 알려져 있고, 조선시대 『經國大典』에 1척을 미터로 환산하면 대략 31.22m로 표시되므로 1보는 1.8m, 10보는 18m, 100보는 180m정도이다. 따라서 1,260보는 미터로 환산시 2,268m로 산성의 둘레가 2km에서 2.6km로 알려진 신기리산성의 체성둘레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양산지역의 성곽과 관련하여 조선시대의 기록을 살펴본다. 조선시대 양산의 성곽과 관련하여서는 『世宗實錄』卷150, 『地理志』, 慶尙道, 慶州府, 梁山郡조에 “城隍山石城, 在郡東五里. 【周回五百六十九步, 內有小溪二, 小池四, 井泉四, 又有軍倉.】”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풀어보면 양산군의 동쪽 5리 지점에 둘레가 오백육십구보의 성곽이 있으며 이름이 성황산 석성으로 작은 연못 둘과 우물이 4개소 군창이 있다고 기록 되어 있다. 즉 당시

양산읍성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5리 지점에 둘레가 569보의 성곽이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성황산성은 둘레 4,368척, 높이 6척이며 성내에 우물 6개와 못 2개 및 군창(軍倉)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조선 전기에는 내지산성에 이웃고을의 입보(入堡)를 겸하여 군창이 배치되기도 하였는데 양산 성황당산성에는 양산을 비롯하여 기장, 울산, 언양, 동래의 군민이 입보하는 산성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增補文獻備考』卷127, 『輿地考』14 조에는 “城隍山城石築 周四千三百六十八尺 高六尺 內有井六池二.”이라 하여 성황산성은 석축으로 둘레가 사천삼백육십팔척이며, 높이는 육척이고 그 안에 우물이 여섯 연못이 둘이 있다고 하였다.

상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양산지역의 산성과 관련한 기록에서는 일괄적으로 성곽의 명칭을 성황산석성, 산성 등으로 표기하며 둘레가 4,369척이며 높이가 6척으로 기록하는 것은 조선 전후기의 문헌에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기록에 수록된 둘레와 높이를 덕수궁에 소장되어 있는 동제 황종척의 실제 길이인 34.10cm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척은 20.66cm, 영조척은 30.65cm가 된다. 또한 포백척은 46.73cm인데 이것을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569보로 환산하면 포백척은 1,595m이고, 영조척은 1,046m 가량이다.¹⁸⁾

반면에 『新增東國輿地勝覽』, 『增補文獻備考』에 기록된 4,369척과 높이 6척을 포백척으로 환산하면 둘레 2,041m, 높이 2.8m이다. 이러한 환산치를 가지고 현재 잔존하는 체성부의 둘레와 비교해 볼 때 신기리 산성이 대략 2~2.6km임을 고려하면 『新增東國輿地勝覽』, 『增補文獻備考』에 기록된 둘레와 높이 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世宗實錄』에 수록된 569보와 배 이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 기록의 오기인지 아님 다른 성곽을 성황산석성으로 비정한 것인지는 혹은 개축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신기리산성과 인접한 북부동산성이 있고 그 둘레가 신기리산성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북부동산성을 성황산석성으로 혼동하여 기록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양산 신기리산성은 조선시대에는 성황산석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위치 및 둘레/높이가 현재 잔존하는 양산과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현재 잔존하는 양산지역의 성곽 중 삼국사기 자비마립간 6년에 왜구의 침입을 방어한 삼랑성은 순지리토성으로 비정되며, 자비마립간 6년조 기사에서 확인되는 연변에 축조하는 두 개의 성곽은 입지 및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낙동강과 인접한 지역에 축조된 산성으로 추정할 수

18) 한국학중앙연구원, <영조척(營造尺)>,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0.

있겠다.

다음 문무왕 13년(673)에 축조된 골쟁현성은 문헌기사 내용으로만 볼 때 정확한 위치비정은 할 수 없다. 다만 문무왕 13년 9월, 국원성(國原城, 옛날의 완장성(蕪長城)이다.), 북형산성(北兄山城), 소문성(召文城), 이산성(耳山城), 수약주(首若州)의 주양성(走壤城, 혹은 질암성(迭巖城)이라 한다.), 달함군(達含郡)의 주잠성(主岑城), 거열주(居烈州)의 만흥사산성(萬興寺山城)등과 같이 축조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거열주(지금의 거창)의 만흥사산성은 최근까지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진 거창 거열산성으로 비정되며 삼국시대 내지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이 산성에서는 신라성곽의 축조수법 가운데 하나인 외벽기단보축과 품자형 쌓기, 수평줄눈맞추기 등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러한 양상은 신기리산성 동벽에서 확인된 체성부의 초축수법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두 성곽에서 확인된 성곽 축조수법만을 두고 보면 동일 시기에 동일한 기술자집단 내지 혹은 성곽축성 감독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어 신기리산성의 초축시기는 5세기 후반보다는 7세기 후반 고신라에서 통일신라에 이전하는 단계에 초축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三國史記』卷34, 『雜誌』3, 地理一의 기사에 “良州 文武王五年 麟德二年 割上州下州地 置畝良州 神文王七年 築城 周一千二百六十步 景德王改名良州 今梁州”라 하여 신문왕 7년에 축조된 둘레 1,260보 성곽의 경우는 앞서에 언급한 것처럼 성곽의 둘레가 양산지역에 잔존하는 여타의 성곽 중 신기리산성의 둘레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신문왕 7년에 기존의 신기리산성을 수축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V. 맺음말

성곽의 축성은 기본적으로 당대의 정치적, 경제적 여건이 고려되어야 하고 특히 축성의 목적과 축성집단의 의도가 반영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단일유적에 녹아 있는 기술과 관념을 분석하여 당대의 정치, 경제, 사회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곽을 연구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제 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축성의 주체가 누구인가와 축성의 목적 즉 왜 이 성을 쌓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다.¹⁹⁾ 특히 성곽은 행정적, 군사적 요충지에 축조되는

¹⁹⁾ 심광주, 『京畿道の 城郭：新羅의 城郭』, 『기전문화예술총서』13, 경기문화재단, 2003, 219쪽.

관계로 시대를 달리해서도 계속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동일성곽에서도 목책, 토루, 석축 등의 축성수법을 달리하는 구조물이 계속 구축되었거나,²⁰⁾ 수차에 걸쳐 보축이나 수축이 이루어진 경우 축성주체를 밝혀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까지의 자료를 보면 신라가 경주 월성을 토성에서 석성으로 개축하는 것이 소지마립간 9년 7월의 일로서 5세기 후반에 해당하는 시기이고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축성된 성곽의 양식은 토성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5세기 후반에 이르러 삼년산성을 축조하는 것을 감안하면²¹⁾ 이때에 고신라지역에 석성이 등장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나제동맹을 통한 고구려의 남하를 저지하며 한편으로 고구려의 석축성의 기법을 받아들여 신라의 성곽축성에 적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경주지역의 신라성은 포곡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후 법흥왕, 진흥왕대인 6세기 중반에 이르면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 및 가야지역으로 팽창시기에는 석축성이 주류를 이룬다. 이때부터 신라는 신라 독창의 성곽축조방식을 선보이며 경기도와 가야고지인 낙동강 서안지역 일대 곳곳에 축성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신기리산성의 축조시기와 관련하여 신기리산성 동벽 체성부에서 통일신라시대를 전후한 초축성벽이 확인되었다. 이 성벽에는 외벽기단보축이 설치되어 있고 品자형의 바른층쌓기를 실시하고 기단부에서부터 내벽쪽으로 약 5cm 간격으로 들여쌓기를 실시한 높이 1.7m(전체 3.2m)가량이 확인되었다. 잔존 성벽의 현황에 따르면 초축 이후 수개축이 구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적어도 총 3차례 내외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삼국사기 삼량주에 기록된 자비마립간 때의 쌓은 두 성 및 문무왕 17년에 축조한 골쟁현성과 신문왕 7년에 삼량주에 축성된 성 가운데 어느 시점임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신라시대 산성의 축조수법이 초축성벽에서 확인되고 있어 초축시기가 빠르면 5세기 중후반에서 늦어도 7세기대로 추정할 수 있겠다. 또한 성내에서 신라토기편과 통일신라시대까지 소급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편, 고려시대의 기와편과 분청사기편, 다량의 백자편 등의 유물이 수습되는 것으로 볼 때 조선시대까지 성곽의 기능이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양산 신기리산성은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를 비롯하여 조선 전기를 거쳐 금정산성이 축조 사용되는 기간까지 양산을 비롯하여 기장, 울산, 언양 군민의 입보용산성(入堡用山城)으로 계속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현황조사결과와 삼국사기를 비롯한 문헌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신라, 가야, 백제의 낙동강유역을 사이에 둔 투쟁과정과 당시 사회상을

20) 沈奉謹·金東鎬, 『梁山尊池里土城』, 東亞大學校博物館, 1983.

21) 金海市, 『金海 良洞山城 地表調査結果 및 補修整備計劃』, 2006, 94쪽.

파악하는데 신기리산성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유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양산 신기리산성은 신라의 남쪽 방어와 대가야(對伽耶) 공격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던 삼랑주의 치소성으로 비정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료의 확보와 연구를 위하여 신기리산성에 대한 전면발굴을 통해 자료확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투고일 2014년 7월 11일 | 심사완료일 2014년 8월 9일 | 게재확정일 2014년 8월 16일 ■

참고문헌

<사료>

- 『三國史記』卷1, 『新羅本紀』
『高麗史』卷57, <志>第11, 地理2.
『新增東國輿地勝覽』卷22.
『增補文獻備考』卷127, 『輿地考』14.

<국내>

- 沈奉鎬·金東鎬, 『梁山尊池里土城』, 東亞大學校博物館, 1983.
朴方龍, 『都城·城址』, 『韓國史論』15, 國史編纂委員會, 1985.
沈奉謹, 『新羅城의 築城手法 二例』, 『百濟研究』19,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1988.
_____, 『蔚州華山里城址』, 東亞大學校博物館, 1990.
車勇杰, 『城壁築造方式의 考察』, 『明活城』, 慶州古蹟發掘調查團·慶州市, 1990.
朴方龍, 『慶州 南山新城의 研究』, 『考古歷史學志』10, 동아대학교박물관, 1994.
심광주, 『二聖山城의 築城技法과 機能』, 『博物館誌』, 漢陽大學校博物館, 2000.
_____, 『京畿道의 城郭: 新羅의 城郭』, 『기전문화예술총서』13, 경기문화재단, 2003.
沈奉謹, 『신라성과 고구려성』, 『韓國文物의 고고학적 이해』, 2005.
金海市, 『金海 良洞山城 地表調査結果 및 補修整備計劃』, 2006.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0.

Abstract

A Study on Yangsan Singiri mountain Castle

Lee, Il-Gab

Yangsan city, Gyeongsangnam-do Singiri acidic mountain town Singiri 20, bukjeongdong acid 20, which is located in San hogyeri 112,260 Street, is situated in the province and its adjacent areas in normal sulfuric 157,074 m² area. January 21, 1963 has been designated as Historic Site 97. Were identified before and after the Unified Silla period in Singiri acid dongbyeok identity is part chochuk walls. Building a proper layer of conducting 品 shaped exterior walls have been installed and the air mass bochuk this was confirmed conducted ethnic brought about by 5cm distance from the proximal end toward the inside wall height 1.7m (total 3.2m) about this. According to the status of the remaining walls is estimated to be composed of at least three times over the outside shot, but can differ depending on the period since the chochuk reconstruction. Thus, as early as the time chochuk itgetda can be estimated in the mid to late 05 century to 07 century. In addition, it is estimated that maintaining the functionality of the castle until the Joseon period, when viewed as being presumed to be retroactive to rectify togipyeon Silla and Unified Silla period in the province of giwapyeon artifacts, and the minutes of the Goryeo Dynasty giwapyeon cheongsagi pieces, porcelain pieces, including a large amount of and is identified as consisting of at least three times the number of renovations since chochuk. Therefore, it is estimated to have been used by the captain continued, Ulsan, ipbo of Eonyang Longshan county property (入堡用山城) through shipbuilding and electricity, as well as the Unified Silla period considered, including the production period is used to geumjeongsan castle built Singiri acid production is.

It was found that occupies a very important position to identify the

remains Singiri acid based between Silla, go, the Nakdong River basin of bleach fight sahoesang time when the review process and comprehensive view more details. Itgetda can also note that the non sapryang occupied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value fired in defense and attack south of Silla go Singiri Acid production.

Key Words : Singiri acid, Unified Silla period, sapryang, ipboYong mountainCastle, Silla, Gaya